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the Goodness/Poorness-of-Fit with Temperament

한 세 영**

Han, Sae Young

박 성 연***

Park, Seong 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poorness-of-fit. The subjects were 236 mothers of 4- to 6-year-old children in Seoul.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nce,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ost poorness-of-fit of emotionality was due child's high-mother's high (CH-MH) and high-low (CH-ML) combination. Most poorness-of-fit (activity as well as sociability) was associated with child's low-mother's low (CL-ML) and low-high (CL-MH) combination. Mothers who had a highly emotional child and who were in poorness-of-fit emotionality perceived more hassles and more intensive daily parenting stress. It was also found that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predicting mother's hassles and daily stress intensity was poorness-of-fit of emotionality, followed by mother's emotionality.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부모됨(parenting)은 긴 기간 동안의 힘든 일이며 특히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양육 과정에서 구속감과 스트레스를 남성보다 더 많이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

* 본 논문은 1995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요약정리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히,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을 통한 즐거움이나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갖기 때문에(계몽 아동 연구소, 1988) 자녀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개념에는 친숙하지 못하여,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관심 밖의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기 시작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주로 부모기로의 전환시기를 중심으로 영아가 부모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아동이 부모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일방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외에도 국외 연구의 경우는 편모나 10대부모 등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양육 스트레스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Wilkie & Ames, 1986; Belsky & Rovine, 1990; Harriman, 1983; 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Ketterlinus, Lamb, & Nitz, 1991; Crnic & Booth, 1991; Umberson, 1989).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기로의 전환시기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취업모의 스트레스(이숙현, 1990; 원정선, 1990), 장애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김영미, 1990; 류정혁, 1990; 전순영, 1984)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부모기로 전환하므로써 겪는 변화에 따라 부모는 스트레스를 지각하며, 장애아동의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최근에 이르러서는 생활사건(life event)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받는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을 더욱 잘 예측해 준다는 견해(Lazarus, DeLongis, Folkman, & Gruen, 1985)가 제시되고 있고 특히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고성혜, 1994; Levitt, Wever, & Clark, 1986). 그

리고 나아가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 어머니와의 기질의 조화가 더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Buss & Plomin, 1984). 이와 같은 관심은 아동발달과 부모자녀관계, 아동체계와 부모체계의 양방향적이고 순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를 고찰해 볼 때 부모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고성혜(1994)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국내의 모두 특히 아동과 부모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연구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아 부모기로의 전환에 초점을 둔 연구를 제외하고는 일반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아동간의 기질적 조화,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1)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는 차이가 있는가?

2) 모자녀간 기질결합 중 어떠한 결합이 조화/부조화를 이루는가?

3) 모자녀간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는 차이가 있는가?

4)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미치는 변인들(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모자녀간 기질적 부조화)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기질적 조화/부조화 정도: 어머니의 기대와 아동의 특성간의 조화를 뜻하는 개념(Thomas &

Chess, 1977; Buss & Plomin, 1984)이므로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서로 같다, 또는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에 대해 만족하는가 불만족하는가의 개념이다. 따라서 아동의 세 기질 영역에 대해 어머니가 어느 정도로 불만족 하는가를 측정하여 모자녀간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의 지표로 삼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불만족 점수와 부조화 정도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 아동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여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건의 발생 빈도를 측정한 것이다.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느끼는가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Ⅲ.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 경험과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Pearlin, 1982), 이혼, 출산과 같은 사건경험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극적이지 않은 스트레스 경험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일상적인 스트레스 사건(daily hassles)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나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심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Lazarus & Folkman, 1984), 최근에는 부모기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변화나 극적인 사건경험보다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인간의 적응과 건강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해 연구한 Crnic과 Greenberg(1990), Compas, Howell, Phares, Williams 와 Ledoux

(1989)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주요 생활 사건보다는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이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빈도보다는 사건을 지각한 강도가 부모의 심리적 상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Crnic & Greenberg, 1990),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극이 있더라도 성격, 인지와 지각, 대처방법 등 개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건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상호작용 지향적인 스트레스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주요 생활 사건보다는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해 부모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게 되며, 사건의 빈도보다는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여러가지 육아책임이나, 아동의 발달적 특성(예; 2, 3세 아동의 독립의 욕구로 인한 고집스러운 행동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의 지각빈도나 지각강도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연관지어 본 연구들은 대개 아동의 세가지 기질 요소인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Buss & Plomin, 1984)중 주로 활동성과 정서성에 관한 것들이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의 활동성과 정서성은 대개 부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Cutrona와 Troutman(1986), Lee와 Bates(1985), Dumas와 LaFrenter(1993)의 연구결

과에 의하면 영아가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기질을 보일 경우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을 보이거나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과활동아의 부모는 정상아의 부모보다 아동과의 관계에서 더 스트레스를 느끼며(Barkley, 1981), 자아존중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ash & Johnston, 1983). 국내연구에서는 고성혜(1994)가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1, 4, 6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의 활동성이 지나칠 경우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3. 어머니의 기질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상호작용 지향적 스트레스이론에 의하면 어머니가 스트레스사건을 어떻게 지각하느냐하는 어머니 개인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모와 아동이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양방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 여부가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작용 지향적 스트레스이론에 의하면 어머니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어머니 자신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에 의해 주관적으로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Watson 과 Clark (1984)은 개인이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면 상황의 부정적인 면에 주목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부정적 경향이 많은 어머니는 영아를 더 까다롭다고 지각한다고 보고되고 있다(Levitt, Wever, & Clark, 1986). 국내연구에서는 고성혜(1994)

가 우울성향이 강한 어머니는 불안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더 느낀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같은 기질의 아동을 자녀로 두었더라도 어머니 자신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

4. 모자녀간 기질적 조화/부조화와 어머니의 스트레스

Thomas와 Chess(1977)의 조화(goodness-of-fit)/부조화(poorness-of-fit)의 개념에 의하면 조화는 환경의 속성이나 환경에 대한 기대가 유기체의 능력이나 행동유형동의 특성과 일치(조화)될 때를 나타내며, 유기체와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최적의 발달이 가능하다. 반면 부조화는 유기체와 환경이 불일치되는 것을 나타내며, 이때 왜곡된 발달과 부적응이 일어난다. 한편 부모-자녀간 기질적 조화를 논의한 Buss와 Plomin (1984)은 부모와 아동의 사회성이 모두 높거나 활동성이 모두 높은 경우 부모와 아동은 조화를 이루며, 부모와 아동의 정서성이 모두 낮을 경우 즉, 부모와 아동이 모두 화를 잘 내지 않고 쉽게 기분이 상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을 때 조화가 이루어져 보다 만족스러운 부모자녀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조화를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는가를 묻은 최영희(1993)는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이 조화로울수록 어머니가 아동에게 애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을 종합해 볼때 어머니와 아동의 기질적 조화나 부조화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부모와 아동이 부조화를 이룰 경우 스트레스와 긴장이 나타난다는 가설을 규명한 연구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236명의 어머니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 4, 5, 6세의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중류층에 해당된다고 평가되는 4개 지역을 선정하고 임의로 표집한 6개의 사립 유치원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4세에서 6세까지의 236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들이었으며(아동평균연령 5.1세, 어머니 33세),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44.1%)과 대졸(36.0%)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취업을 하지 않은 주부(73.7%)가 주를 이루었다.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 비슷한 교육수준을 보였으나 고졸자(29.2%)보다 대졸자(47.0%)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서비스/자영업(29.2%), 사무직/기술직(27.1%), 전문직/관리직(40.2%)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1990년의 교육별, 1993년의 직업별 인구분포자료(통계청, 1994)를 근거로 볼 때 본 연구 대상의 사회계층은 중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

2. 조사도구

(1) 기질 척도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Buss와 Plomin이 개발한 아동용 EAS와 성인용 EAS를 사용하였다. Buss와 Plomin의 EAS척도는 정서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bility)의 세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용과 성인용 질문지가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각 범주별 신뢰도가 낮아 전체 문항을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을 재구성한 후 내용타당도가 낮은 어머니기질 1문항, 아동기질 1문항을 제외시켜 신뢰도를 높인 후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성인용 기질척도와 아동용 기질 척도는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정서성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경우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내는 경향이 많으며, 활동성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경우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고, 사회성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경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쉽게 친해질수 있는 경향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모자녀 간에 조화/부조화되는 기질적 결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는 기질 간 조화/부조화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조화로 본 최영희(199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아동용 기질척도에서 묻고 있는 아동의 기질에 대해 어머니가 얼마나 불만족 하는지를 Likert식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기질영역은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모자녀간 기질 결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이 각각 $\alpha=.75$ 와 $\alpha=.61$ 였다.

(2)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척도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Crnic과 Greenberg(1990)이 개발한 PDH(Parenting Daily Hassles)를 변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PDH는 아동과 어머니 사이에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20개 문항에 대해 발생빈도와 그 일로 인하여 지각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하

도록 되어 있다. 원래 PDH는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표현이 모호한 문항과 문항 내용상 대상아동의 어머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2문항을 제외한 후 1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식성이 까다롭고 반찬투정을 한다”등과 같은 아동의 행동으로 인한 사건들과 “장난감이나 음식물 어지럽힌 것을 계속 치워야 한다”등과 같은 부모로서 해야할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사건의 발생빈도 영역은 $\alpha=.83$ 이며, 스트레스정도의 영역은 $\alpha=.88$ 였다.

3. 조사 절차

질문지 문항의 적절성 파악 및 최종 문항 확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거친 후, 9월 18일부터 10월 2일에 걸쳐 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조사 자료수집을 위해서 서울 시내에 위치한 6개의 유치원과 유아원을 중심으로 만 4-6세의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419부였으며 이중 회수된 질문지는 289부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잘못 표기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3부를 제외한 후 요인분석으로 재구성된 아동기질 19문항, 어머니 기질 19문항, PDH 18문항의 최종적인 23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 일원변량분석, Duncan추후검증, 이원변량분석,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유의도는 $p<.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에 따른 모자녀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2×2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1〉와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아동의 정서성은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F=11.27, P<.01$)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F=8.38, P<.01$) 모두에 주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의 정서성은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대해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표 1〉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에 대한 아동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성의 이원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P-value
주효과	6.244	2	3.122	8.397	.000
아동 정서성	4.190	1	4.190	11.271	.001
어머니 정서성	.682	1	.682	1.835	.177
상호작용효과	.313	1	.313	.841	.360
오 차	71.758	193	.372		
전 체	78.041	196			

(표 2)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대한 아동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성의 이원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P-value
주효과	7.727	2	3.864	7.035	.001
아동 정서성	4.600	1	4.600	8.375	.004
어머니 정서성	1.461	1	1.461	2.660	.105
상호작용효과	.006	1	.006	.011	.917
오차	98.313	179	.549		
전체	106.121	182			

한편 아동의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성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정서성에는 관계없이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 때 어머니는 일상적 스트레스사건을 더 자주 경험하였으며(낮은집단 $\bar{X}=2.52$, 높은집단 $\bar{X}=2.87$), 일상적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지각하였다(낮은집단 $\bar{X}=2.52$, 높은집단 $\bar{X}=2.87$).

반면에, 아동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활동성,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사회성은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유의한 주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으며 상호작용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2. 모자녀간의 기질결합유형에 따른 조화/부조화정도

본 연구는 모자녀 간 기질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방법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기질영역점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첫째,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특성이 모두 낮은 집단(1집단), 둘째,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특성이 모두 높은 집단(2집단), 셋째, 아동의 기질특성이 높고, 어머니의 기질특성이 낮은 집단(3집단), 넷째, 아동의 기질특성이 낮고, 어머니의 기질특성이 높은 집단(4집단)의 4개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이들 4가지 결합유형 중 어떤 결합유형이 조화/부조화를 이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영희의 연구(1993)를 참고로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특성에 대해 지각하는 불만족정도를 모자녀 기질 간의 부조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아 불만족정도의 점수가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중 전체평균점수보다 높으면 부조화, 낮으면 조화로 온 것으로 보았다. 연구문제 2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의 4가지 결합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4가지 각 결합유형의 불만족정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보아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이 모두 높은 집단(2집단)과 아동정서성이 높고 어머니 정서성이 낮은 집단(3집단)은 불만족점수의 평균(2집단; $\bar{X}=3.18$, 3집단; $\bar{X}=3.34$)이 전체평균인 2.78보다 높게 나타나 부조화되는 결합이며, 아동의 정서성이 낮고 어머니 정서성이 높은 집단(4집단)과,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이 모두 낮은 집단(1집단)은 불만족점수의 평균(4집단; $\bar{X}=2.44$, 1집단; $\bar{X}=2.10$)이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조화로운 결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의 정서성이 낮고 어머니의 정서성이 낮은 집단(1집단)이 가장 조화로운 결합으로 나타나, 아동과 어머니가 모두 화를 잘 내지 않고 쉽게 기분이 상

하지 않는 기질특성을 지녔을 때 가장 조화를 잘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 나타났듯이, 모자녀 간의 정서성 결합유형별로 정서성의 불만족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34.96, P<.0001$) Duncan의 추후검증결과, 1, 4집단과 2, 3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 때, 즉 아동이 화를 잘 내고 쉽게 기분이 나빠지는 특성을 지녔을 경우, 어머니의 정서성 정도에 관계없이 부조화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불만족 점수에 대한 정서성 결합유형의 일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정서성의 불만족 점수				
	N	\bar{X}	S.D.	F	Duncan
정서성 결합					
(1집단)아동 하 어머니 하	67	2.10	.79	**** 34.96	A
(2집단)아동 상 어머니 상	58	3.18	.74		B
(3집단)아동 상 어머니 하	54	3.34	.76		B
(4집단)아동 하 어머니 상	28	2.44	.73		A

**** $p<.0001$

한편, 활동성의 경우는 아동과 어머니의 활동성이 모두 낮은 집단(1집단)과 아동의 활동성이 낮고 어머니의 활동성이 높은 집단(4집단)의 경우 불만족 점수의 평균(1집단: $\bar{X}=2.54$, 4집단: $\bar{X}=2.73$)이 전체평균인 2.29보다 높아 부조화되는 결합이며, 아동과 어머니의 활동성이 모두 높은 집단(2집단)과 아동의 활동성이 높고 어머니의 활동성이 낮은 집단(3집단)은 불만족점수의 평균(2집단: $\bar{X}=2.07$, 3집단: $\bar{X}=1.87$)이 전체평균보

다 낮아 조화로운 결합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모자녀간의 활동성 결합유형 별로 활동성의 불만족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47, P<.0001$). 따라서 아동의 활동성이 낮을 때는 어머니의 활동성에 관계없이 부조화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불만족 점수에 대한 활동성 결합유형의 일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활동성의 불만족 점수				
	N	\bar{X}	S.D.	F	Duncan
활동성 결합					
(1집단)아동 하 어머니 하	44	2.54	.68	**** 16.47	A
(2집단)아동 상 어머니 상	67	2.07	.79		B
(3집단)아동 상 어머니 하	52	1.87	.63		B
(4집단)아동 하 어머니 상	59	2.73	.80		A

**** $p<.0001$

<표 5> 불만족 점수에 대한 사회성 결합유형의 일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사회성의 불만족 점수				
	N	\bar{X}	S.D.	F	Duncan
사회성 결합					
(1집단)아동 하 어머니 하	62	2.60	.79	**** 32.47	A
(2집단)아동 상 어머니 상	48	1.73	.60		B
(3집단)아동 상 어머니 하	56	1.72	.62		B
(4집단)아동 하 어머니 상	54	2.68	.70		A

**** $p<.0001$

사회성의 경우도 활동성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보여(표 5 참조), 아동의 사회성이 낮을 때는 어머니의 사회성에 관계없이 부조화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3. 모자녀간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모자녀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 결합유형 별 집단에 따라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63$ $p<.01$). 즉, 부조화되는 결합(2, 3집단)중에서도 특히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이 모두 높은 집단(2집단)이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이 모두 높아 부조화를 이룬 경우 모자녀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 역시 어머

니의 정서성과 관계없이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 결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F=4.74$ $p<.01$), 특히 아동의 정서성이 높은 두 부조화집단(2, 3집단)이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이 모두 낮은 집단(1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이 모두 낮은 조화로운 집단(1집단)의 어머니들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가장 약하게 지각하였으며 부조화한 집단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다.

반면에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빈도나 강도는 아동과 어머니의 활동성 결합유형이나 사회성 결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조화로운 결합이나 부조화한 결합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4. 모자녀 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기질적 부조화정도)의 상대적인 영향력

〈표 6〉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대한 모자녀간의 정서성결합 유형에 따른 일원변량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모자녀간의 일상적 스트레스사건빈도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지각강도				
	N	\bar{X}	S.D	F	Duncan	N	\bar{X}	S.D	F	Duncan
정서성 결합										
아동 하 어머니 하	68	2.51	.61		A	61	2.43	.75		A
아동 상 어머니 상	53	2.94	.61	** 5.63	B	48	2.96	.71	** 4.74	B
아동 상 어머니 하	50	2.73	.65		A B	49	2.76	.84		B
아동 하 어머니 상	26	2.55	.53		A	25	2.61	.55		A B

** $p<.01$ *** $p<.001$ **** $p<.0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기질적 부조화정도의 각 요인이 모자녀 관계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모자녀 관계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를 각각 종속

변인으로 하고 아동의 세가지 영역의 기질, 어머니의 세가지 영역의 기질, 세가지 영역의 기질적 불만족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7>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표 7>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아동 정서성	-										
2. 아동 활동성	-.06	-									
3. 아동 사회성	-.05	.51***	-								
4. 어머니 정서성	.26***	-.08	-.02	-							
5. 어머니 활동성	.05	-.03	.05	.06	-						
6. 어머니 사회성	.08	-.04	.02	-.25***	.14*	-					
7. 정서성 불만족	.69***	-.10	-.14*	.21	.12	.04	-				
8. 활동성 불만족	.31***	-.40***	-.30***	.14**	.13	.14*	.52***	-			
9. 사회성 불만족	.24***	-.31***	-.62***	.03	.05	.03	.47***	.66***	-		
10. 스트레스사건빈도	.40***	.06	-.01	.30***	.05	-.05	.47***	.29***	.23**	-	
11. 스트레스지각강도	.33***	.09	-.03	.27***	.04	-.05	.50***	.35***	.27**	.85***	-

*p<.05 **p<.01 ***p<.001

A. 모자녀관계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

<표 8>에서 나타나듯이, 모자녀 관계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성의 부조화정도($\beta=.39, p<.0001$), 어머니의 정서성($\beta=.21, p<.01$) 순이었으며 이 두 변인이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24%였다. 이중 정서성의 부조화정도가 19%를 설명하고 있어, 대부분의 스트레스 사건 빈도는 정서성의 부조화정도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서성의 부조화가 클수록,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정서성이 높을 수록 일상적 스트레스사건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8> 모자녀관계에서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 빈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B	β	R Square	ΔR
정서성의 부조화정도	.28	.05	.39****	.19****	
어머니의 정서성	.23	.07	.21**	.24****	.05**
(Constant)	1.33	.21			

*p<.05 **p<.01 ***p<.001 ****p<.0001

* 부조화정도는 불만족 점수를 뜻한다.

B.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

<표 9>에 나타나듯이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성의 부조화정도($\beta=.31, p<.001$), 어머니의

정서성($\beta=.20, p<.01$), 활동성의 부조화정도($\beta=.26, p<.01$), 아동의 활동성($\beta=.18, p<.05$) 순이었으며 이 네 변인이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강도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31%였다. 이중 정서성의 부조화 정도가 23%를 설명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각강도는 정서성의 부조화 정도에 의해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서성이 부조화될수록,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활동성 부조화정도가 클수록, 아동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문제 2의 결과 어머니들이 아동의 활동성이 높기를 기대하여 아동의 활동성이 높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문제 4의 결과 비록 어머니들이 아동의 높은 활동성을 기대하였을 지라도 실제로 아동의 활동성이 높을 경우 그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성의 부조화정도는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표 9〉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B	β	R Square	ΔR
정서성의 부조화정도	.27	.07	.31***	.23****	
어머니의 정서성	.26	.08	.20**	.26****	.03**
활동성의 부조화정도	.25	.08	.26**	.29****	.03*
아동의 활동성	.17	.07	.18*	.31****	.02*
(Constant)	.06	.39			

* $p<.05$ ** $p<.01$ *** $p<.001$ **** $p<.0001$

* 부조화정도는 불만족 점수를 뜻한다.

V. 논 의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은 모자녀 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대해 정서성 요인에서만 주효과를 나타내었고 활동성과 사회성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화를 잘 내고 쉽게 감정에 좌우되는, 정서성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는 일상적 스트레스사건을 많이 경험하며 일상적 스트레스도 높게 지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성이 높은 아동일 경우 화를 잘 내고 기분이 쉽게 상하여 달래기가 힘든 문제성이 많이 나타나며(Buss & Plomin, 1987), 불안한 정서의 아동과 어머니는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Dumas & LaFrenter, 1993)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기질 특성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세 요인 모두에서 스트레스 사건빈도나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주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어머니의 기질특성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사건빈도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간의 결합유형 중 어떠한 유형이 조화/부조화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 결과, 정서성의 경우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성이 모두 높은 결합과 아동의 정서성이 높고 어머니의 정서성이 낮은 결합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어머니의 정서성에 관계없이 아동의 정서성이 높아 화를 잘 내고 쉽게 기분이 상하는 특성이 많을 수록 모자녀간의 정서성이 부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활동성과 사회성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아동과 어머니의 활동성이나 사회성이 모두 낮은 결합과 아동의 활동성이나 사회성이 낮고 어머니의 활동성이나 사회성이 높은 결합이 부조화를 이루었다. 즉 어머니의 활동성이나 사회성 정도와는 상관없이 아동의 사회성이나 활동성

이 낮은 경우 어머니는 아동과의 관계에서 부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와 아동의 활동성과 사회성이 모두 높은 경우 원만한 부모 자녀관계를 이루며 어머니와 아동의 정서성이 모두 높을 경우 스트레스와 긴장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Buss와 Plomin(1987)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모자녀기질의 조화/부조화에 따른 모자녀 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 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서도 역시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자체로 인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서성 요인에서만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활동성과 사회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성 요인에서는 부조화되는 결합과 조화로운 결합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아동과 어머니가 조화를 이루는 경우보다는 부조화를 이룰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스트레스 지각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로 보아 모자녀 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있어 활동성과 사회성의 부조화보다는 모자녀간의 정서성의 부조화가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정서성의 부조화정도, 어머니의 정서성 순인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변인은 정서성의 부조화정도, 어머니의 정서성, 활동성의 부조화정도, 아동의 활동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빈도와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 모두에 아동과 어머니간의 정서성의 부조화와 어머니 자신의 정서성요인이 독립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또한 활동성의 부조화도와 아동의 활동성은

스트레스빈도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강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비록 어머니들이 아동의 활동성이 높기를 기대하여 아동의 활동성이 높을 경우 조화를 이루어서 스트레스빈도는 덜 느끼나 강도는 높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아동의 활동성이 높은 경우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며,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지치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들(Mash & Johnston, 1983; Buss & Plomin, 1987)을 지지한다. 그러나 아동의 활동성 자체보다는 활동성이 부조화될 경우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스트레스에 대해 모자녀기질 간의 부조화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세가지 기질 요소중 주관적 인식의 성향을 떠는 정서성 요인이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는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아동의 정서성이나 어머니의 정서성보다 모자녀간 정서성의 부조화 정도가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지각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므로써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적이고 양방향적인 관계를 입증하였다. 또한 아동의 기질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정서성이 스트레스지각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므로써 같은 사건일지라도 주관적으로 인식되어, 개인의 성격, 지각 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화/부조화의 개념을 방법론적인 제한으로 인해 어머니 일방의 불만족 정도로 측정하였다는 점과 기질적도나 스트레스를 모두 어머니의 보고에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

니다. 그러나 부모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내의 실정에서,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모자녀간의 기질적 조화와 연관시켜 알아봄으로써, 어머니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아동기질 자체 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정서적 특성, 특히 어머니-자녀간의 부조화여부가 보다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계몽 아동 연구소(1988). 한국 부모의 자녀 교육 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 김영미(1990).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정선(1990).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제2집, 1-27.
- 류정혁(1990). 뇌성마비 아동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순영(1984). 신체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과 아동의 일상생활동작 의존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1993). 기질과 환경간의 “조화로운 합치” 모델 검증 연구(I): 조화로운 합치 정도와 양육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 217-226.
- 통계청(1994). *한국의 사회지표*.
- Barkley, R. A.(1981). Hyperactivity. In Mash, E. J. & Terdul, L. G.(Eds.) *Behavioral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
- Belsky, J., & Rovine, M.(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 Buss, A. H., & Plomin, R.(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NJ: Erlbaum.
- Compas, B. E., Howell, D. C., Phares, V. P., Williams, R. A., & Ledoux, N.(1989). Parent and child stress and symptoms: An integrative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50-559.
- Cr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utrona, C. E., & Troutman, B. R.(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umas, J. E., & LaFreniere, P. J.,(1993). Mother-child relationships as source of support or stress: A comparison of competent, average, aggressive, and

- anxious dyads. *Child Development*, 64, 1732-1754.
- Goldsmith, H. H., Buss, A. H., Plomin, R., Rothbart, M. K., Thomas, A., Chess, S., Hinde, R. A., McCall, R. C.(1987).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8, 505-529.
- Harriman, C.(1983). Personal and marital changes accompanying parenthood. *Family Relationship*, 32, 387-394.
- Ketterlinus, R. D., Lamb, M. E., & Nitz, K. (1991). Developmental and ecological source of stress among adolescent parents. *Family Relations*, 40, 435-441
- Lazarus, R. S., DeLongis, A., Folkman, S., & Gruen, R.(1985). Stress and adaptational outcomes: The problem of confounded measures. *American Psychologist*, 40, 770-779.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ifer Publishing Company.
- Lee, C. L. & Bates, J. E.(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eren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Levitt, M. J., Weber, R. A., & Clark, M. C. (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Mash, E. J., &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Pearlin, L. I.(1982). The social contexts of stress. In L. Goldberg & S.Breu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Y:Free Press.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Thomas, A., &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Umberson, D.(1989).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999-1012.
- Watson, D., & Clark, L. A.(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0.
- Wilkie, C. F., & Ames, E. W.(1986). The relationship of infant crying to parental stress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545-550.